**[참된 것을 말하라]** 2020.03.01

출 20:16 정성록 목사님

출 20:16

1. ○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
* 거짓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.
*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.
*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.
* 거짓이 정당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.
* 우리는 거짓에 익숙해져 있다.
* 거짓이 잘못인지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.
* 과연 우리는 거짓에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?
* 우리는 순간 순간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다.
* 거짓 증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의미이다.
* 증거는 목격자나 증언을 의미한다.
* 증거라 함은 법적인 사항을 근거에 두고 있는데,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을 주셨을까?
* 그 당시에는 법정에 대한 정의가 단순했다.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해 판결되었다.

신 19:15

1.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
* 당시 두세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, 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.
* 그러므로 당시에는 정직하고 진실한 증언이 필요했다.
*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증언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9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.

잠 25:18

1.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
* 거짓 증언은 화살이다. 즉, 거짓 증언이 사람을 죽일 수도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.
*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다.
* 법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9계명이다.
* 9계명은 법적인 것과 더불어 우리 일상적인 삶에 매우 밀접한 계명이다.
* 일상에서 쉽게 범하는 거짓과 관련되어 있다.
* 단순히 9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5계명에서 10계명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.

호 4:2

1.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
* 호세아 선지자가 10계명에 거론된 계명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.
* 거짓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?
* 거짓말은 에덴동산에서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꾀임으로 시작되었다.
* 선악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나, 사탄인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.
* 우리에게는 거짓의 DNA가 숨겨진 것 같다.
* 우리는 도덕의 기본을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.
* 거짓말은 알려주지 않아도 행한다.
*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다.
* 현재는 거짓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.
* 거짓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. 거짓은 무서운 죄이다.
* 거짓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.
*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* 현재는 거짓말이 당연시되고 있다. 그러나 거짓말이 쌓이다 보면 분별력이 없어진다.
* 성숙과 미성숙의 문제와 거짓말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.
* 거짓말은 왜곡이다. 모함도 거짓말이다.
* 모함은 나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.
* 거짓과 진실은 구분하지 못할 경우도 많다.

엡 4:31

1.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
* 비방과 모함은 죄이다.
* 자랑, 허탄한 자랑도 거짓말이다.

약 4:16

1.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
* 허탄한 자랑은 남을 속이는 악한 것이다.
* 또 하나의 거짓은 침묵이다. 기독교인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거짓이다.
* 성경에는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으로 모세가 살 수 있었다.
*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다.

히 11:31

1. 믿음으로 기생 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
* 라합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였다.
* 기독교인들도 히브리 산파와 라합의 행위를 보면,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가?
*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, 그 중심에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더 중요한 요점이 된다.
* 히브리 산파의 거짓과 라합의 거짓은 모세의 생명과 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.
* 거짓말은 인간의 본성이다.
* 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? 성경은 자기 체면 때문이라고 한다.
*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사탄의 거짓에 빠져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다.
* 왜 숨었을까?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. 이단들도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.
* 우리는 자기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.
* 또한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,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.
* 자기 합리화와 책임 회피를 위해 남의 잘못을 과장되게 말하는 거짓의 세계에 빠져든다.
* 거짓말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성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.
* 사탄은 거짓을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.
*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된다.
* 거짓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다.
*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.
*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남의 생명까지 해치게 된다.
* 우리는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. 그러므로,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.
*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.
*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.
*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.
* 우리에게는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다.
* 우리는 남을 곤경에 빠트리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.
* 거짓말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. 존재론적인 문제이다.

요 8:44

1.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 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 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
*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,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.
* 그런데,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악에, 거짓에 속해 있다면,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서 변화되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엡 5:8

1.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
*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,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면, 어둠에 속한 그들의 속성과 성품들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.
*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며, 진실이고, 빛이며, 생명이기 때문에, 거기에 속한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.

엡 5:9

1.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 진실함에 있느니라
* 우리가 빛의 열매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야 한다.
* 의로움은 공의로움이다. 객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. 공정한 것이다.
* 진실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.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다.
* 그러므로, 거짓말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, 존재론적인 문제이다.
* 9계명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.
*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 증거하여서는 안된다.
*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.
*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.
*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.
*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여야 한다.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변화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.
*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과 진리, 빛이 나의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, 나의 자아는 죽게 되어 있다.

나의 거짓이 죽게 되어 있다. 나의 자랑이 죽게 되어 있고, 나의 자존심이 죽게 되어 있다.

*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,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, 우리를 속이는 거짓과 기만으로부터 자유하며,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며 실행된다.
*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하며,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.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.

엡 4:23-24

1.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
2.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
* [입으라]는 것은 단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.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말씀이며,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라는 것이다.
*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 만을 말하라. 그러기 위해서는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.

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.

* 나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.
*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.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격을 지으셨다는 것이다.
*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.
* 말에 진실을 담아야 한다. 말에 참된 것을 담아야 한다.
* 말에 진실과 참됨이 담겨졌을 때, 우리를 살리고, 이웃을 살리며,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.
*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? 진리의 말씀, 진실함에 있다.
* 사탄이 교회를 무너트리며, 깨트리고자 하는 최고의 전략은 거짓이었다.
*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, 진리의 증언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.
* 우리가 참된 것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.
*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, 이웃을 보호하고, 우리를 보호하며,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.

요점

*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짓 증거하여서는 안되며,

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.

기도 제목

*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며,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진실함으로,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.

적용

*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 안하기